

## 조선왕조실록의 가뭄 기록

김현준<sup>1)</sup>

### 1. 서론

조선의 3대 왕으로서 왕조의 기반을 확립했던 태종은 “수한(水旱)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갈고 씨 뿌리[耕播]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人事)를 닦고 천시(天時)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였다. 성리학적 유교 윤리에 통치이념을 둔 조선의 지배층은 하늘(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기에, 단지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는 세계관을 지녔었다.

수문학은 자연현상 중에서도 물의 순환을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자연적 사건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과거에 발생한 이상홍수 또는 가뭄 기록이 현대의 수자원계획에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조사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가뭄 기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록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제한된 시간과 노력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 CD-ROM을 주제어로 검색하였는데, 충복을 포함하여 전체 12,800여건에 대한 검색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왕대별로 가뭄의 발생 횟수와 지역,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주요 가뭄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가뭄에 임하는 대응 전략을 비구조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데 국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충실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부 선임연구원  
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Tel : 031-910-0266, Fax : 031-910-0251  
E-mail : hjkim@kict.re.kr

## 2. 조선시대 가뭄 기록

### 2.1 주요 가뭄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가뭄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하여 「가뭄」, 「한발」, 「한해」, 「기아」, 「흉년」, 「한재」, 「기근」과 같은 주제어를 이용하여 조선왕조실록 CD-ROM을 검색하였다.

「가뭄」 3,173건, 「한발」 93건, 「한해」 63건, 「기아」 118건, 「흉년」 5,948건, 「한재」 1,766건, 「기근」 1,657건 등 총 12,800 여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나, “기아”, “흉년”, “기근” 등은 가뭄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가뭄”에 대한 기록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표 1과 그림 1은 조선왕조실록 CD-ROM에서 “가뭄”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한 가뭄 검색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가뭄 기록이라기보다는 가뭄이라는 용어의 기록 수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점으로 보아, 가뭄이 발생하였거나 가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시점에 가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뭄이라는 발생 자체만을 국한하여 본다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좀더 충실히 검토하여 실제 가뭄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가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분류할 필요가 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검색된 기록을 보면 성종, 중종, 효종, 현종, 영조, 정조 시기에는 가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으며(이들 왕들의 제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만), 조선후기인 순조, 현종, 철종 시기에는 비교적 기록 수가 그 이전에 못 미친다. 이러한 점은 서울지점에서 측우기에 의해 장기간 측정된 강수량 자료의 분석 (Kim et al., 1993)에 의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영조부터 정조 초반기의 연평균 강수량이 전체기간 평균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가뭄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순조, 현종, 철종 기간에는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하여 가뭄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측우기의 강수자료를 보면 1880년부터 1910년까지 근 30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기간 평균의 40%~7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가뭄 기록을 고종/순종 실록에서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1에 제시한 내용 중에는 해를 거듭하여 가뭄기록건수가 10회 이상인 기록들도 보이는데, 태종(14~16년), 세종(17~18년, 21~22년, 25~27년), 성종(5~6년, 12~13년, 16~18년, 21~22년, 24~25년), 중종(4~5년, 9~12년, 20~24년, 27~28년, 34~37년), 명종(8~10년, 14~15년), 선조(36~37년), 광해군(6~7년), 인조(18~19년), 효종(7~8년), 현종(1~2년), 숙종(3~4년), 영조(47~49년), 정조(5~6년, 22~23년) 등이다.

표 1 조선왕조실록의 가뭄 기록건수

왕	제위기간	제위기간	가뭄기록
태조	6	1392/07-1398/09	21
정종	2	1398/09-1400/11	5
태종	18	1400/11-1418/08	158
세종	31	1418/08-1450/02	322
문종	2	1450/02-1452/05	17
단종	3	1452/05-1455/06	25
세조	13	1455/06-1468/09	38
예종	1	1468/09-1469/11	7
성종	25	1469/11-1494/12	442
연산	12	1494/12-1506/09	53
중종	38	1506/09-1544/11	452
인종	1	1544/11-1545/07	7
명종	22	1545/07-1567/06	145
선조	41	1567/07-1608/02	121
선수*	-	-	14
광해	18	1608/02-1623/03	98
인조	26	1623/03-1649/05	168
효종	10	1649/05-1659/05	98
현종	15	1659/05-1674/08	105
현개*	-	-	154
숙종	45	1674/08-1720/06	214
숙보*	-	-	5
경종	4	1720/06-1724/09	22
경수*	-	-	5
영조	52	1724/08-1776/03	233
정조	24	1776/03-1800/06	151
순조	34	1800/07-1834/11	49
현종	15	1834/11-1849/06	5
철종	14	1849/06-1863/12	1
고종**	44	1863/12-1907/07	-
순종**	3	1907/07-1910/08	-
계			3,135

주) \*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정실록, 숙종보정실록, 경종수정실록

\*\*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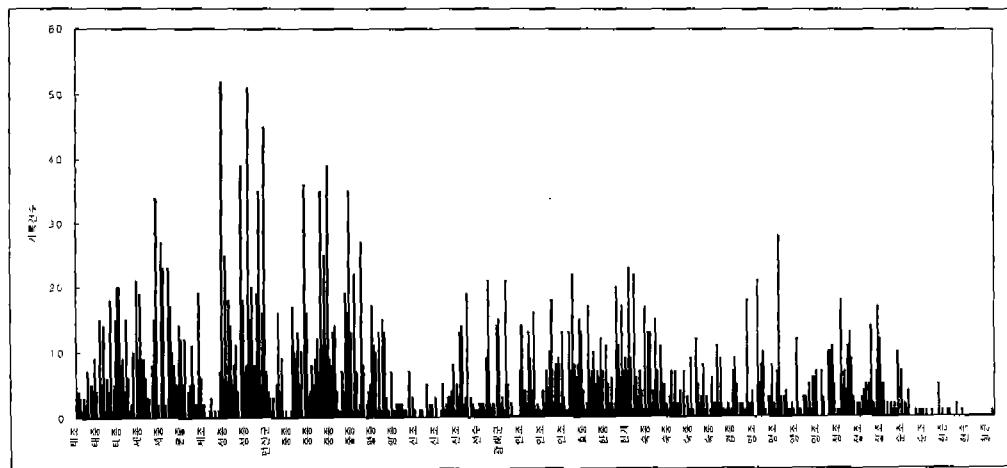


그림 1 조선왕조실록의 왕대별 가뭄 기록건수

## 2.2 가뭄 대책

조선시대의 가뭄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 못하였을 경우나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전통적인 동양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임금은 임금대로, 관리들은 관리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 했는지, 사치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으며, 원한이 맷한 사람들이 있나 살펴보았고 기우제를 지냄으로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뭄을 이러한 소극적 방식으로만 대할 것은 아니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리사업(水利事業)을 일으켰으며, 평상시에도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 수령들을 감찰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 농사에 이용하고 있는 수차(水車)를 이용해보고자 수 차례 축진하기도 하였다.

### 2.2.1 비구조적 대책

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윤리에 바탕을 두고 모든 현상을 이해하였다. 자연재해도 이와 같은 사상 아래서 보았는데, 음양의 부조화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음양이 고르지 않은 것은 임금과 신하에게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가뭄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임금의 도리를 다하였는가 살펴보았다. 임금의 일상 생활이 궁핍하게 제한을 받게되는데, 임금은 감선(減膳; 식사량과 가지수를 줄이고)하고, 피선(被膳; 자는 곳을 옮기고)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며 이에 응

해야 했다. 즉, 가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하늘과 동일시 되었던 절대군주인 임금에게 찰못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또한 관리들은 가뭄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일반인에게는 절주(節酒)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쌀로 술을 빚어먹는 일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성곽을 쌓거나, 대궐을 증축하는 등의 공사(工事)를 중단하게 하였으며, 일부 관리들이나 궁궐 나인들의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원한이 쌓여 하늘에 다으면 재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억울한 원옥(冤獄)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용신(龍神)의 기운이 하늘에 뻗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용신의 힘을 누를 수 있는 호랑이 모양의 나무 인형을 제작하여 물에 담그거나, 전국 각지의 영험한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으로써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다.

### 2.2.2 구조적 대책

조선은 유교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개국 초부터 강력한 농본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태조는 마을의 한량(閑良)층에서 재능이 있고 청렴한 사람을 뽑아서 권농관(勸農官)으로 삼아 농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인 늦가을에 제언을 수축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물을 저수하게 함으로써 다음 해의 농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여 경험 많은 농부들의 농업기술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정조는 농사에 필요한 방법과 농서들을 제출하라는 유통(綸音)을 발표하였는데, 국가표준의 농서를 편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으로 농서 편찬의 결실은 보지 못했지만, 수리(水利)와 농학(農學)에 대한 관심이 당시의 실학자(實學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검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박지원과 서유구의 역할이 남달랐다. 박지원은 「과농소초(課農小抄) 수리편」을 통하여,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誌) 수리편」에서 수리의 중요성과 농사기술 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역 과농소초(최홍규 역, 1985)”와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문중양, 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결론 및 제언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조선시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0여년 동안에 발생한 가뭄 기록을 조사하였다. 실록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대한 가뭄 기록들을 수록하고 있었는데, 관련 기록 건수만을 보면 12,800여건에 달하였고 가뭄에 대한 기록만도 3,000건이 넘었다. 실록에는 날짜와 피해지역, 피해정도, 구휼대책 등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가뭄으로 하천이 말라버린 내용 등도 적고 있지만, 현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함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단순한 기록만을 취합하여도 조선시대에도 해를 거듭한 가뭄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6년이나 연속된 가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의 지배층은 가뭄이 음양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하여, 하늘의 뜻에 거역한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였으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기우제를 통하여 음양이 조화롭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대응 외에도 농사가 끝난 가을에는 제연을 보수하고 새로 수축하기도 하였으며, 하천에 보(洑)를 막음으로써 다음 해의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였고, 수차와 농기구 등을 개발하고 농서(農書)를 편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도 병행하였다.

자연 재해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 기록으로부터 과거의 재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앞으로 역사 기록을 통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과학기술처, 기상청 기상연구소,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및 이상기상에 관한 연구 (II), 1991
- 2) 규장각,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문화, 서울대학교, 1998
- 3) 김현준, 조선시대 하천공사 기록 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8
- 4) 김현준, 조선시대 홍수 기록 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9
- 5) 누리미디어, 국역증보문헌비고, <http://www.nurimedia.co.kr>, 2000. 11. 29.
- 6) 문종양,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 조선시대사 연구총서8, 집문당, 2000
- 7) 박지원(著), 최홍규(譯), 과농소초, 아세아문화사, 1987
- 8) 서울시스템, 국역조선왕조실록 증보판 CD-ROM, 1998
- 9)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1999
- 10) 이중환(著) · 이익성(譯),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 11)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한국수리사, 1996
- 12)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5
- 13) Kim S., Jung S., and Kim H., "Tempor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trend at Seoul, Korea, 1771-1991", 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Hydrology, ASCE, San Francisco, July, 1993.